



Market Index / 15일

코스피지수 ▲ 3194.33 +11.95	코스닥지수 ▼ 1013.90 -0.52	유가(WTI, 달러) ▲ 63.15 +2.97	환율(원)	1USD 1136.54 100¥ 1043.56	1EUR 1365.02 1CNY 179.42	1097.46 1007.68	1311.76 162.34
---------------------------	--------------------------	------------------------------	-------	------------------------------	-----------------------------	--------------------	-------------------

가격 폭락 양배추 시장격리에 22억 투입

도, 3월 시장격리에도 효과없자 최근 12억 추가 투입 "출하 늦어져 상품성 하락에 여름작물철 닥쳐 불가피"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폭락한 제주 산 양배추 가격 지지를 위해 올해 시장격리(산지폐기)에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가격이 평년보다 갑절 이상 높아 모처럼 농가가 함박웃음을 지었지만 올해는 생산량 증가에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이 겹쳐 가격 폭락이 농가를 덮쳤다.

15일 제주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양배추 가격 폭락에 지난 3월 10억원(도비 6억원, 농협과 자부담 각 2억원)을 투입해 3300t을 시장격리(산지폐기)한데 이어 이달에도 추가로 12억원(도비 9억원, 농협 1억1000만원, 자부담 1억9000만원)을 투입해 이번주까지 8000t의 시장격리를 마무리하는 중이다. 3월 1차 시장격리와 농가 자율적으로 10% 폐기, 러시아에 수출 추진, 하나로마트에서 할인판매 등으로 안간힘을

썼지만 평년보다 많은 저장물량과 감염병 상황에 소비부진이라는 악재가 겹쳐 양배추 가격은 좀처럼 반등하지 않는 상황이다.

양배추 가격 하락은 2020년산 도내 양배추 재배면적이 1748ha로 전년 대비 1.6% 늘었고, 생산에 상당은 9만600t으로 16.2%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국 생산량은 34만3000t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양배추 가격은 올 1월만 해도 서울가락시장 경락가가 8kg(상품)에 8564원으로 평년(7445원)보다 높았던 것이 제주산이 본격적으로 출하된 2월에는 5779원으로 떨어졌다. 1차 시장격리가 이뤄지기 직전인 3월 17일 서울가락시장 경락가는 8kg에 3508원으로 작년 3월(9591원)과 평년 3월(6995원)에 견줘 50~60%정도 낮았다.

이달 14일과 15일 경락가격은 각



3월 말 가격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양배추밭 전경. 사진=한리일보DB

각 4394원, 3954원으로 평년 4월(6090원)과 가격이 유례없이 좋았던 작년 4월(1만3921원)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하락세가 뚜렷하다. 현재 출하 대기중인 양배추 물량은 10~20% 정도로 이달 말쯤까지는 출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 차례의 시장

격리에도 양배추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출하가 늦어지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태"라며 "양배추를 수확 후 여름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농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달에도 농가신청을 받아 시장격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민간아파트 분양가 1년새 82% 올라

3월 기준 ㎡당 719만원... 1년 전 395만원서 급등 전국평균 상승률 14.2%에 견주면 6배 가량 올라

제주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전용면적 기준 84㎡에 9억원대 아파트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이 이는 가운데 최근 1년간 도내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5일 발표한 3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은 3월말 기준 ㎡당 719만원으로, 전국평균(410만원)보다 75.5% 높아 서울(857만원) 다음으로 비쌌다. 인천(476만원), 대구(468만원), 경기(437만원), 부산(429만원), 울산(423만원)과도 격차가 컸다.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직전 12개월간의 자료를 평균한 최근 1년간의 평균가격으로 작성된다.

도내 3월 분양가격은 1년전과 비교한 상승률도 82.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년 전 ㎡당 395만원에서 1년 새 719만원으로 뛴 것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4.2%를 기록했는데 제주 다음으로 울산(34.6%), 경북(19.9%), 강원(17.6%), 전남(16.6%), 인천(11.8%)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분양가격이 1년전보다 하락(-2.2%)했다.

제주는 3월 분양가격지수도 307.5로 유일하게 300을 웃돌며 전국평균 지수(157.9)의 갑절 수준을 나타냈다. 분양가격지수는 기준시점인 2014년의 평균 분양가격을 100인 수치로 환산해 산출한 값이다. 문미숙기자

제주 웰니스 관광으로 코로나19 극복한다

관광공사-서귀포시 업무협약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활성화

제주 웰니스 관광 거점 육성 및 상품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다. 제주관광공사와 서귀포시, (주)하나투어, 제주스타트업협회는 15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웰니스 관광을 제주관광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귀포시는 웰니스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과 함께 상품 개발 및 활성화 협력을 진행키로 했다.

제주스타트업협회는 도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웰니스 콘셉트의 공간 개발 및 활성화를 진행하는 한편,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등 도내 스타트업 기업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관광공사와 서귀포시, (주)하나투어, 제주스타트업협회는 15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하나투어는 웰니스 관광 거점 지역의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상품 활성화에 나선다.

제주관광공사는 도내 웰니스 관광 거점 조성을 비롯한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웰니스

상품 개발 및 여행객 유치를 위해 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와도 협의를 추진하는 등 도내 여행업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투어와 제주스타트업협회 소속 기업은 총 16억원을 투입해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웰니스 콘셉트의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하나투어에서는 서귀포시지역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여행상품 개발 및 판매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현철 제주관광공사 유통지역관광팀장은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추진된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공동선언문 채택 이후 본격적으로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첫 협력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으로 제주를 웰니스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기반 마련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광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태업 서귀포시장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웰니스 관광, 마을 관광, 인택트 관광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웰니스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 속에서 이번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더욱 좋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ty456@ihalla.com

KT-한샘 '스마트 리모델링' AI 기반 스마트홈 동시 구축

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때 KT의 기가지니 스마트홈 시스템 공사와 함께 가능해진다.

KT 제주단은 KT전남/전북광역본부가 한샘리하우스 the수완점과 손잡고 AI 기반 스마트홈 리모델링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리모델링 공사와 스마트홈 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고객이 증가하는데 따른 협력사업으로 제주에서는 이르면 5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지난해 17조원에서 2030년에는 29조원 규모로

늘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스마트홈협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도 2025년에는 30조6000억원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건축물 리모델링과 스마트홈에 대한 고객 수요가 증가 추세지만 고객 리모델링 공사와 스마트홈 시스템 구축을 별도로 진행한 경우 시공한 리모델링 상품과 스마트홈 기기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공사 일정을 맞추기에도 불편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KT전남/전북광역본부와 한샘 리하우스 the수완점에 맞춤형 인테리어와 함께 기가지니를 통해 음성으로 커튼, 에어컨 조망, 가스밸브 등을 제어할 수 있는 'KT AI 스마트홈 솔루션'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관광업체 공유경제 상품 공모 개별 관광객 대상 비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영세 관광사업체 공유경제 특화 상품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워드코로나 시대 비대면 개별 관광객 증가에 따라 니즈 충족 및 공유경제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도내 여행업 등록업체(5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 여행업체)로, 사업내용은 개별관광객 대상 당일 특화 상품에 대한 차량임차비 및 체험활동비, 홍보비 지원 등이다. 지원조건은 1컨소시엄당 1개 당일 상품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협회홈페이지, 방문 및 이메일(moonkk2002@hanmail.net)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관광협회 마케팅과(064-741-8793). 이태윤기자

감귤 신상품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모듬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향, 아미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아식한 모듬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유주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중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요

010-2691-1883

국내개발 우수한 [신상품] 감귤모듬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 황금향대조품종(검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경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대조품종 - 제라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리향(천혜향)

과수농가 보조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홍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갈, 팔삭, 세미봉, 금굴,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론 국내산 탕자모듬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중자업등록 국립중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자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 991번길 1
중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중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상품 다수보유

서귀증요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모듬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모듬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갈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중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